

사람 몸을 입고 내려와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

사람이라면 5대공약을 이룰 수 없다

선악과의 실체를 말하는 사람이 틀림 없는 구세주요 성경의 주인공이요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고서야 선악과의 실체를 알 수 있었어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의 본체

또한 죄의 실체를 바로 말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는 주인공이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죄인 줄만 알았죠? 그러나 나라라는 주체의식이 행하는 것이 다 죄라는 말을 한 사람이 6천년 인류역사 이래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성경이나 불경에는 '나를 항상 버려라'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 하는 식으로 이제그대로 나라라는 의식이 바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물질이라는 것을 그려 놓은 거죠?

나라는 의식이 선악과요, 나라라는 의식이 마귀 중 마귀라는 사실을 구세주가 아니면 명확하게 설명해줄 자가 없어요. 구세주라는 사람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시시한 능력이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정도령이 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격압 유류 출장문에 써서 있었어요. 정도령은 바로 구세주요, 생미륵불이라고 써서 있었어요.

정도령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고 말을 했어요. 그건 신(神)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이면 태풍을 막을 수 있어요? 공산주의를 없앨 수 있어요? 여름 장맛비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풍년들게 할 수 있어요? 전쟁 못 일어나게 막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신이니까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말씀을 듣지마자 반대 생활을 하게 돼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틀림없이 영생을 줄 사람이라는 걸 100% 확신 못하는 자는 멍텅구리예요. 멍텅구리가 지옥 가는 거지, 똑똑한 사람은 안 가요. 세상에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어요. 면할면(免)자, 장례 장(葬)자! 몰라서 죽는 거지, 알면서 안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라는 의식이 선악과요, 나라는 의식이 죄 중에 죄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어떻게 되어서 시키는 대로 생활할 수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알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이를 악물고 나라는 의식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반대로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저절로 반대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못하는 자는 바보예요. 바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써서 있는 말은 나라라는 의식이 있는 한,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지만 사람으로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귀 종인 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인 고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은 꼭 죽게 되어 있어요.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은 길이 없어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죽으면은 집안



구세주 조희성님

에서 낫두지 않고 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산에 갔다가 물어버려요. 그것만도 얼마나 비참해요. 같이 살다가 죽으면 갖다가 물어버려요. 참 비참하죠?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죽지 않는 명약인 감로이슬성신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른다면 참으로 한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감사를 해도 그 은혜를 값은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매일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보람이 되

도록 모든 것을 기울여 바쳐도 못 값이요. 왜? 구세주의 분신이 사람의 생명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세주의 분신이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남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해주면서 살려주고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게 감사로서 끝날 일이에요. 감사를 백 번, 천 번째도 그 은혜를 못 값이요. 아시겠어요? 항상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서 공로를 세우고 또 세워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 이치는 물건의 값을 지불해줘야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건이

세상 우주덩어리만 한 금덩어리 갖다가 쥐고 맞바꿀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는 건 나의 모든 전체를 다 바쳐도, 있는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기울여도 맞바꿀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구세주는 무조건 주고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감로이슬성신을 내리는 자가 구세주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요, 선악과는 사망의 신이요, 사망의 신이 바로 마귀인데 마귀를 죽이는, 마귀를 멸해버리는 감로이슬성신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는 명약인 고로 감로이슬성신을 내리는 자가 구세주이면서도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명약이 감로이슬성신이에요. 감로이슬성신이 이 사람 코에서 나오고 머리에서도 나오는 사진 보셨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말 안 해도 알겠죠? 영생의 명약인 감로가 이 사람 코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온다면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격압유류에 구세주라고 써서 있다고 해서, 성경에 써서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죠? 분명히 영생의 물질이 이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틀림없는 구세주요, 많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4절에 바로 우리들을 살리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세주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사람처럼 보이지

만 사람을 구원해내려니까 사람 몸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으니까 무궁무진한 전지능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공산주의를 없앤다!' 이것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자체를 못해요. 사람은 공산주의라는 건 하나의 인간의 이념이요, 인간의 사상이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어떻게 지워버리느냐 그 말이요. 사람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분신으로 공산주의자 속에 들어가서 그 사상의 이념의 마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째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어찌 '공산주의 좋다!' 하는 놈이 그 이튿날 '나는 공산주의 싫다!'로 변하니 세계 공산주의가 폭삭 망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사람이야?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아서라도 틀림없이 구세주요, 틀림없이 온 인류를 하나님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진리를 먼저 알게 된 사람의 사망

그러면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을 만들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면 이 소식을 하루빨리 세계만방에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 앞에 나와서 구원 얻도록 해줘야 먼저 안 사람의 사망을 다 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안 사람들의 사망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세계만방에 알려줘야 사망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2001년 11월 2일 설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5) 은잔

(지난호에 이어서)
“이 종이 총리 각하게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왕과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늙으신 아버지의 슬픔은 얼마나 클지 모릅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베냐민 바로 위에 요셉이란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잃은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베냐민을 당신 목숨이나 다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각하게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하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먼 길에 요셉처럼 잃어버릴까 싶어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형제 모두가 생명을 내걸고 데리고 오겠다고 굳은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총리 각하, 우리 사정을 굽어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이 돌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떼어내어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더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하고 격정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베냐민을 남겨 놓고 간다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돌아가실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종으로 잡아 두시고 다른 형들과 함께 베냐민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요셉은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 아람이 요셉 자신과 동복(同腹) 동생 베냐민을 변함없이 애지중지하는 데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요셉은 고향의 말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편안하십니까?”하고 자신을 알리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여짜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

《4장 요셉》

(5) 은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다

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 이가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입만 벌리고 있다가 바로 앞에서 있는 사람이 동생 요셉의 모습이 틀림없는 것

못하게 됩니다.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네들,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셔서 나의 뜻을 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와 형님네들과 온 식구들과 함께 양과 소떼를 이끌고 모두 이리로 이사 와서 내 곁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내가 모든 힘을 기울여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가뭄은 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 틀림없는 형님네들의 동생입니다. 애굽에 와서 보신 것을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이 말을 끝마치자 요셉은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몹시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삼시간에 애굽 안에 퍼졌습니다. 임금님도 신하들도 다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임금님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셉 총리! 그대의 형제들에게 빨리 가나안에 돌아가게 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오.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에서 살게 하고 애굽에

서 제일 맛있는 것을 대접해 드리도록 하오. 그리고 어린애들과 여자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수레를 보내어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오도록 하오. 재산 같은 것은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고 와도 좋소. 애굽의 훌륭한 것을 모두 드리겠다고 전하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수레와 먹을 것과 옷 한 벌씩을 내주고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은둔 삼베 세겔과 옷 다섯 벌을 더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요셉은 아버지를 위하여 나귀와 곡식과 떡과 양식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형제들을 전송하던 요셉은 “가시는 길에 지난일로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당부까지 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열한 명의 아들로부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은 처음에는 꿈인 줄로만 알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들 가운데 빙그레 웃는 단의 모습을 보게 되자, 양식을 구하려 애굽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 자신의 침소에서 '요셉이 애굽의 재상으로 있는 것을 보았다'는 아들 단의 말이 새삼스럽게 기억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람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나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만족하다.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서 만나 보아야지.' 아람은 가족과 함께 곧 마나나 애굽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보릿단과 해와 달, 별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던 꿈이 사실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안헬라